



희애와 극복의 메시지 - 히로시마, 내 사랑

히로시마 하면 무슨 이미지가 떠오르는가? 흑백 사진의 회색 버섯구름... 세계 최초의 원폭 피해 도시, 그리고 2차 대전의 종식, 군국주의의 집단광기에 종지부를 찍은 궁극적 폭력의 행사장, 우리나라 해방의 소식을 가져다 준 일본의 패망... 이런 것들이 우리가 기억 속에 간직하고 있는 히로시마의 이미지이다. 흑자는 빛의 속도로 그 도시의 뺏속까지를 헤집던 방사선의 아픔과 그 비극성에 오늘도 몸을 떨고, 어떤 이는 몹시 분개하고 또 슬퍼한다. 그리고 오늘



날의 젊은 세대들은 이에 대해 별다른 생각이 없는 듯하다.

공포와 절망의 대명사, 아비규환의 현장... 이러한 비극적인 수사로

점철되는 어두운 역사 속의 히로시마를 1959년 이미 따뜻하게 ‘내 사랑(Mon amour)’이라고 불러준 영화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프랑스 장 르네 감독의 흑백 영화, 「히로시마 내 사랑」이다.¹⁾ 원자력을 다룬 영화가 많지만 주제 의식과 작가적 역량 그리고 영화미학 이런 것들이 높이 평가된 것은 거의 없었다. 영화 속에서 원자력은 대개 무시무시한 비극의 전령사이거나 악당 테러리스트의 협박 무기가거나 했던 것이다.²⁾ 그러나 이 「히로시마 내 사랑」은 소위 영화사에 한 구석을 차

1) <히로시마 내 사랑>은 알랭 레네가 연출한 최초의 장편 영화였다. 그는 고호와 고갱 같은 예술가들을 다룬 50년대 다큐멘터리 작업으로 영화를 시작해 유대인 수용소를 다룬 중편 다큐멘터리 <밤과 안개>로 미래의 프랑스 영화를 이끌어갈 감독으로 많은 기대를 모았다. 장편 데뷔작 <히로시마 내 사랑>을 통해서 과거와는 전혀 다른 영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그의 많은 영화들은 주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어떻게 상호 작용을 하는가, 기억과 상상력이 갖고 있는 리얼리티는 무엇인가와 같은 추상적인 문제들을 다룬다. 70년대 후반 이후 레네의 문제 의식은 더욱 확장되고 기억의 문제도 개인적 영역에서 벗어나 집단적인 것 내지 사회적인 것으로 변화한다. 그의 영화는 고다르 같은 감독들과 들뢰즈 같은 이론가들에 큰 영향을 끼쳤고 현대 영화를 개척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프랑스, 1959년, 91분, 흑백, 각본: 마르그리트 뒤라스, 촬영: 다카하시 미치오, 사사 비에르니 편집: 앙리 콜피, 음악: 조반니 후스코, 조르쥬 들르뤼, 출연: 엠마누엘 리바, 오카다 에이지였다.

2) 원자력의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시키는 영화가 없는데 대해 분개할 필요는 없다. 그런 영화가 있다면 그게 홍보물이지 무슨 영화이겠는가? 그걸 만들면 아마 욕을 얻어먹을 것이고 흥행에도 실패할 것이 틀림없다. 원자력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원자력을 부정적으로 묘사한 영화들에 대해 분개할 필요도 없다. 그런 영화가 만들어진다고 원자력이 현실적으로 당장 문을 닫지도 않거니와 그런 시각 또한 이 세상의 일부이니 말이다.



지하고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야기 되는 수준의 그런 영화다.

누가 히로시마를 따뜻하게 ‘내 사랑’이라고 불러준 적이 있었던가? 과학자들은 핵분열이란 인류사의 위대한 과학적 발견이 이 도시에서 수십만의 희생자를 내는데 첫 번째로 사용된 것에 대해 부끄러워하고 혀를 찬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는 인체에 대한 대량 방사선 피폭의 좋은 데이터베이스일 뿐이다. 정치학자들은 이를 국제정치적으로 해석하며 심리학자들은 폭격 이후의 사회심리학적인 트라우마 현상에 주목한다. 평화주의자거나 히로시마 시민이거나 간에 이들은 이 ‘사

치 권력에 선전 수단으로 이용당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은 또 미움과 공포를 극복하고 절망을 추스르게 하는 치유와 화해의 메시지를 던지기도 하는 것이다.

사랑과는 어울릴 것 같지 않은 1940~50년대의 히로시마를 남과 여의 사랑의 렌즈로 들여다보고 그리고 따뜻하게 사랑이라고 불러 준 영화. 그것이 「히로시마 내 사랑」이다. 보통 ‘내 사랑’ 하고 말을 붙일 때는 그 대상은 대개 사람이다. 인류 최초의 원폭의 버섯구름이 떠오르는 폭력의 도시, 대량 살상의 그 도시가 왜 내 사랑이란 말인가? 대

체 히로시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영화가 끝날 즈음에 우리는 비로소 ‘히로시마 내 사랑’이라는 제목을 이해하게 된다.

예술가는 어떠한가?

때로 ‘예술은 절반이 사기’라고 예술가 스스로가 주장하고 또 폭력 선동의 선봉에 서기도 한다. 예술은 또 간교한 정

체 히로시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영화가 끝날 즈음에 우리는 비로소 ‘히로시마 내 사랑’이라는 제목을 이해하게 된다.

줄거리를 보자. 영화 주인공들은 이름이 없다. ‘그 남자’, ‘그 여자’이다. 프랑스 여배우인 그녀는 평화를 주제로 한 영화를 찍기 위해 히로시마에 온다. 그리고 일본인 건축가인 ‘그’와 우연히 만나 사랑하게 된다. 그들은 과거의 기억, 경험을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그녀의 첫사랑 이야기가 점점 밝혀진다.³⁾ 프랑스를 점령했던 독일 군인과 그녀는 사랑을 하지만 그 도시가 해방되면서 남자는 죽고 그녀는 대중 앞에서 치욕을 당한다. 그녀는 양친의 집에서 미친 사람처럼 갇혀 지내다가 영원히 집을 떠나기로 작정하고,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폭이 투하되고 전쟁이 끝났던 바로 그날 파리에 다시 돌아온다.

그녀의 과거의 독일군 연인이나 현재의 일본인 연인인 그 남자는 모두 그녀의 조국인 프랑스의 적들이었다. 그녀가 과거 독일군과의 연애 때문에 공개적으로 당한 수모와 폭력은 원폭의 비극을 보여주는 참혹한 영상들로 이루어진 영화의 시작 시퀀스의 원폭의 희생자들과 오버

3) 이 이야기는 단계적으로 전개되고 과거와 현재의 복잡한 은유를 보여준다. 선형적인 인과 관계, 명확한 목표, 그리고 지배적인 내러티브와 관련된 의식적인 동기 대신 은유가 제시된다. 영화가 진전되면서 영상 관계는 점점 더 추상화된다. 그녀의 고향 마을과 히로시마 거리, 그리고 과거와 현재는 카메라의 시점에 의해 연속성으로 집중되며 동시에 현재의 남녀 사이의 관계는 기억으로 연결된다. 그녀의 이야기는 경험과 그 기억을 역사의 질서로 변형시킨다. 그녀는 거울 속에서 그녀 자신과 직면하고 그녀의 죽은 연인에게 그녀의 배신에 대해 말한다. 경험과 기억과 관련하여 이 영화는 재현의 특성을 탐구하고 있다. 관객은 경험과 그것의 재현은 또 다른 문제이며 보는 것이 그릇된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Seeing is not believing) 즉 재현의 가치와 의미에 대해 회의하고 그것의 은유적 관계에 주목하게 된다.



랩 된다. 머리가 벗겨지고 피부가 타고 뒤틀린 것으로 표현된 그 파괴와 기형의 이미지들은 그녀가 광장에서 머리를 깎이고 피부가 찢기고 피로 얼룩지는 장면과 연결된다. 하지만 그녀는 또 왼쪽이 히로시마에 떨어진 그날 일본의 항복으로 연합군이 승리하면서 자유를 찾은 것이기도 하다.

여자는 프랑스에서의 자신의 과거의 불행한 경험을 히로시마에서

다시 떠올리고, 히로시마라는 도시가 지닌 아픔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로 인해 히로시마에서의 그녀의 삶은 과거의 기억과 계속 오버랩⁴⁾ 되며, 그녀는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프랑스로 돌아가려고 한다. 반면에 남자는 여자의 기억은 히로시마를 이해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로 본다. 여자에게 히로시마는 전쟁의 끝을 의미했으나 남자에게는 그렇지 못했던 것이다.

‘히로시마에서는 평화에 대한 농담은 하지 않는다’ 그 남자는 이렇게 말한다.

남자는 그 여자가 히로시마를 떠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여자가 떠나지 못하도록 막으려 한다. 영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평행선을 달리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여준다. 두 사람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전쟁이 남기는 흔적과 그 상처에 대해 다시 느낀다. 그러나 영

4) 이 영화는 줄거리가 아니라 과거 기억들의 이미지와 음악으로 그 의미를 전달하는 당시로서는 상당히 낮은 표현 방식을 보여주었다. 음악은 단순한 배경이나 소품이 아니라 주제를 전달하는 적극적인 도구로 사용되었다.



화의 끝에서 두 남녀는 서로간의 이해의 차이를 인정한다. 「당신의 이름은 히로시마이다」라는 마지막 대사는 이들이 서로간의 생각의 차이를 결국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기억과 사랑과 죽음... 이 영화는 이것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프랑스로 사랑과 죽음이란 말은 철자와 발음과 의미가 비슷하다.(사랑을 의미하는 L amour 는 죽음을 의미하는 La mort는 철자와 발음이 유사하다) 생명의 현상인 사랑이 왜 죽음과 유관한 것인가. 전문가는 몸사랑의 절정인 오르가즘에서 예를 찾는다. 오르가즘은 ‘작은 죽음’

이며 그런 의미에서 사랑과 죽음은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히로시마에서 만난 새 연인 ‘그’와의 몸 사랑이 끝난 후, 그녀는 파리에서의 연인의 몸을 기억에 떠올리고 영화는 플래시백으로 과거로 돌아간다. 파리에서 그녀와 사랑을 나누었던 독일군 애인... 그는 그녀를 만나러 오다가 총에 맞아 죽는다. 원폭으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된 도시 히로시마에서의 그 폭발로 해서 그녀도 해방을 얻은 그 아이러니한 상황은 그녀에게 혼란스럽다. 그러나 그 도시에서 만난 일본인 연인과의 사랑의 행위 가운데서 그의 사

랑의 기억은 다시 살아난다. 비극적 죽음의 도시의 상징인 히로시마가 내 사랑이 된다. 사람들에게 히로시마는 죽음 그 자체였지만 사랑하는 사람에게 히로시마는 ‘내 사랑’으로 다시 태어난다.⁵⁾

그는 그녀에게 말한다. “당신은 히로시마에서 아무 것도 보지 않은 거야. 아무 것도...” 그녀는 대답한다. “나는 모든 걸 보았어요. 모든 걸...” 원폭의 끔찍한 경험을 간직한 도시... 죽음과 동의어인 도시 히로시마에서 아름답고 건강한 몸을 가진 남녀의 사랑의 행위와 고통스런 기억들을 오버랩 하면서 죽음과 사랑과 절망의 극복과 전쟁의 트라우마로부터의 치유의 메시지를 이야기한 영화, 「히로시마 내 사랑」...

오늘 히로시마는 아름답게 조성된 도시로 다시 태어나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와 평화기념관을 방문하고 있다. 과거 원폭의 악몽과 상처는 평화박물관의 전시실에 간직된 채 이제 걸으로는 치유된 것 같이 보인다. 당시 흑백 영화 스크린으로 고통스런 히로시마의 폭력과 죽음의 기억을 끄집어내어 이를 어루만지고 지워져 ‘히로시마, 내 사랑’이라고 불러 준 감독 장 레네. 그의 예술혼을 이 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5) 사랑과 죽음 같은 이런 상반된 이미지를 연결하여 사용하는 것은 프랑스 시에서 많이 시도되던 기법이었다. 오늘날은 영화 기법이 발달하여 이런 기법은 이제 진부하지만 이 흑백 영화는 당시 새로운 바람을 불러 넣었다.